

한국이민어머니의 동화과정과 자녀들의 행동문제

Korean Immigrant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Patterns of Assimilation
in Relation to Perception of Their Children's Behavior

金 鍾 玉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목적

미국으로 이주해가는 한국인은, 미국에 이주해온 아시아인을 위한 U. S. A Immigration Legistration (Public Law 89-236, 1965)의 수정과 한국 국회에서의 한국 이민법의 통과(1963)에 따라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도의 미국 인구 조사보고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69,000명이었는데 1980년도 인구조사에는 그것의 5배를 초과하는 355,00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New York 주의 한국인 인구도 1970년도에는 6,607명 이었으나 1980년도에는 34,000명 이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영주하고 있는 한국인 인구는 이 상과 같은 인구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주미한국이민을 연구하는 자들 (Rgu jai P, 1977; 허 원무, 김 광정, 1980)의 견해이다.

이와같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한국 이민들은 1950년에서 1960년 후반기에 도미하였던 한국인들과는 이주목적이 현저히 다르다. 이 이민자들은 단신이 아니고 가족동반과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경제적 생존이 급선무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생존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는 가족간의 문제, 자녀들의 사회화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짙어가고 있다.

Gudith Landau(1982)가 이민가족원들의 "Transitional Conflict of the

*이 논문은 저자의 미국 Adelphi 대학교에서의 1983년 6월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System"을 주장하고, Gorlan과 Grushka(1971)가 미국이민들의 변천기(transitional stage)에서 오는 어려움과 사회사업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듯이 우리 한국 이민 가족에게도 미국이라는 새롭고도 낯선 사회에서의 문화적(cultural), 사회적(social) 동화(assimilation)를 위해서는 변천기에서 오는 어려움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변천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민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적절한 사회사업실무(social work practice)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주인국(host country)인 미국에서만 아니라 이민을 보내는 한국에서도 긴급하게 요청되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조사의 목적은, 이민 어머니들의 미국에서의 동화과정과 그들 자녀의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함이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하였지만, 이민생활에서는 가정과 서투른 미국사회에서의 이중적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실정이다. 가족 전원의 기능 및 적응적 변화, 즉 가족 체계의 변화(family system change)에 어머니의 역할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어머니의 동화과정의 진전이 자녀들의 성장과정과 동질성 확립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머니가 새로운 미국사회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자기 고국의 문화라든가 근원을 무조건 배척하고 미국 문화와 미국적 사고만을 받아들인다면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뿌리와 동질성을 소중히 여길 수도 없고,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민 어머니에 대한 이 연구는 한국 이민 가족들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사업가 및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2. 가설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 어머니(Korean immigrant mother 이하 KIM이라고 함)의 사회적 동화(social assimilation) 과정과 어머니들이 그들 자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행동문제의 정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하였다. 문화적 동화와 사회적 동화를 독립변수(independence variable)로, 자녀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수(dependence

variable)로서 취급하였으며, 추가 연구로서 이민 어머니의 동화과정과 사회사업기관 이용 그리고 인적사항과의 관계도 조사하였다.

가. 가설

제1가설: "문화적 동화 수준은 높지만(high cultural assimilation, 이하 HCA라고 함) 사회적 동화 수준은 낮은(low social assimilation, 이하 L-SA라고 함) 한국 이민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행동에 문제가 높은 것 (high child's behavior, 이하 HCB라고 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유형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진출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social contexts)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의 느낌을 자녀에게 투사하게 되어 자녀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어머니와 자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가설은 Yu, Chae-Kun의 한국 이민 연구결과와 Sanua, Victor의 유대계 이민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개념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Yu(1977)는 미국 Seattle, Washington에 사는 성인 한국 이민자들의 동화정도와 그들 자녀들의 성격적응(personality adjustment)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동화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오히려 낮은 성격적응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u는, 한국 이민들은 미국 사회인 주인국에 동화되기 전에 본래의 한국 문화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해석하였다.

Sanua(1956)는, 3세대 유대인 소년들의 성격적응을 조사한 결과, 3세대제의 소년들이 1세대나 2세대 소년보다 성격 부적응(personality Maladjustment)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Sanua는 유대계 이민들이 다수집단인 미국 사회에서의 수용이 없이 문화적 동화수준만 높으면 오히려 성격적응에 심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석하였다.

이 두학자의 학설은, 이민들의 확실하지 않은 주체성과 이민들을 받아들이는 주인국의 부족한 수용력이 이민들의 적응에 문제를 야기시키며 그들 자녀의 행동문제에도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2가설: "문화적·사회적 수준이 모두 낮은(LCA and LSA) 한국 이

민 어머니는(KIMI)는 그의 자녀 행동문제가 중간수준(*medium child's behavior*: 이하 MCBI라고 함)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 유형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진출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에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격리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는, 문화적 동화도가 높고 사회적 동화도가 낮은 어머니가 체험하는 갈등처럼 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일관성있는 가정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또한 이 유형의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은 자립심과 책임감을 더욱 느끼고 있다(Yu, 1977; Hurh, 1977).

제 3가설: “문화적·사회적 동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HCA and HSA) 한국 이민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 행동문제를 낮은(LCB)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유형의 이민 어머니는 사회적 환경에 많이 관여하고 있으며 문화적·사회적 동화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Yu (1977)와 Sanua(1956)들이 지적하듯, 이들 이민 어머니의 사회적 동화는 이들이 주인국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민생활에 보다 안정감을 갖게 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4가설: “문화적 동화수준은 낮지만(LCA), 사회적 동화 수준이 높은(HSA) 한국 이민 어머니는 이 연구 대상 집단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대체로, 문화적 동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동화는 후에 이루어진다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Gordon, 1964; Greely, 1974; Yu, 1977; Hurh *et al*, 1978)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4가설을 다음의 도표로 표시하였다.

<TABLE>

Hypothesized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ultural and Social Assimilation and Child's Behavior Problems

Cultural Assmilation	Social Assimilation	
	High	Low
High	Low Problems	High Problems
Low	No Cases	Medium Problems

나. 연구에서 쓰여진 변수의 정의

1) 한국 이민 어머니 (korean immigrant mother) : 한국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1971 년으로 부터 1981 년 사이에 이민 비자자격으로 미국에 이주한 어머니이다.

2) 한국 아동 (Korean child) : 한국에서 출생하고, 이민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이주한 사춘기 딸이나 아들이다. 이 연구 조사기간 (1982 년 6 월 ~ 9 월) 에 13 세에서 16 세에 이르는 자녀들이다.

3) 문화적 동화 (cultural assimilation) : 언어의 숙달과 미국풍속 또는 미국 생활양식등의 적응으로서, 이민생활에 제일차적 과정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4) 사회적 동화 (social assimilation) : 미국 사회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미국인과 밀접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것으로,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녀의 행동문제 (child's behavior problem)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녀들의 교우 관계 및 사회화 (socialization) 와, 가정에서의 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행동문제를 파악한 것이다.

다. 연구대상의 선정과 조사방법

연구대상은, 한국 이민 어머니로서 1971 년에서 1981 년 사이에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13 세에서 16 세된 자녀를 동반하고 미국에 이민은 사람들이다.

선정된 125 표본에게, 문화적·사회적 동화정도 (cultural / social assimilation scale) 를 측정하고 자녀의 행동문제 정도 (child's behavior scale) 를 측정하는 설문 14 문항과 추가조사를 위한 설문 14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수집은 1982 년 6 월부터 9 월까지 이루어졌다.

II. 조사결과 및 해석

연구자가 측정한 네가지의 가설중에서 네번째의 가설만이 어느 정도 이 자료에 의해 입증되었고, 처음 세가지의 가설은 모두 통계적으로 강한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 이민 어머니들 (KIMs) 의 동화과정과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들의 행동문제와는 별로 긴밀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의 이민 어머니들, 즉 전체 표본의 67.2%가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동화과정에는 관계없이 그들 자녀들에 대해 심한 행동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통계적 입증은 얻어지지 않았으나, 책정한 가설대로 어느 정도 일관성있는 유형 또는 경향은 다음 도표에 표시한대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Comparison of CA & SA Schema and CB Levels
Schema of CA & SA

Level of CB	Low CA and Low SA		High CA and Low SA		High CA and High SA		Low CA and High SA		total	
	#	%	#	%	#	%	#	%	#	%
High	17	33.3	17	41.5	7	23.3	0	41	32.8	
Medium	13	25.5	14	34.1	10	33.3	1	38	30.4	
Low	21	41.2	10	24.4	13	43.3	2	46	36.8	
total	51	100.0	41	100.0	30	100.0	3	125	100.0	

제 1 가설 :

HCA와 LCA에 속하는 KIMs(N=41)은 자녀들의 행동문제가 높은 수준으로(HCB)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이 연구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단지 17(41.5%)명만이 그들의 CB를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이 집단의 KIMs이 자녀의 행동문제를 예측할만큼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에 설명된다.

(1) 이 표본집단은 매우 동질적(homogeneous)이었다.

이민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세이며 자녀의 평균 연령은 14.7세였고, 이들의 미국 이주연한은 평균 4.9년이나 가계 연수입의 평균은 33,542불이라는 중상층(upper middle class)의 수입이다. 대부분이 비전문직이거나 소규모 상점 경영자(small business owner)로 종사하고 있지만 매우 열심히

히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에서의 교육수준이나 직책은 매우 높은 편이라 미국에서는 Elite Korean Immigrant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전체 연구대상의 94.4% 가정이 완전한 가족(intact family)이기 때문에 미국에 많은 결손 가정(broken family)이 있는 것에도 비교된다. 이와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demographic factor)들로 인하여, 한국 이민 어머니들이 낮은 사회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질적인 보호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 KIMs의 미국 거주 평균기간은 4.9년으로 이것은 한국의 미국 이민에 비교적 짧은 역사이다. (Hurh et al, 1978)

4.9년이라는 기간은 사회적으로 동화하기에 충분한 시일이 아니며 또한 이민은 사람들이 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아주 강한 문화적 규범들을 파괴해버리기도 불가능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유산은 그들 생활의 모든 면에서 계속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KIM은 그들 본래의 문화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동화를 하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당신은 한국의 말, 역사, 윤리와 풍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하는 문화적 동화 측정 척도의 질문을 하였을 때 HCA를 하고 있는 71명의 KIMs중 70명(98.6%)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가정의 잡일을 남편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화적 동화 척도의 질문에서 HCA를 하고 있는 71명의 KIMs중 69명(97.25%)이, 가사일에 대해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한국의 전통적 상황과는 반대로 남편과 함께 가사일을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반면, 그들은 HCA를 하는 KIMs 집단의 매우 특이한 성질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미국화 하는데 온힘을 쏟느라고 한국적 문화, 전통 규범과 가치를 거부 또는 배척하게 되어, 이민 생활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가 최고의 관심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HCA를 하고있는 이민 어머니들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매우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적인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등 매우 융통성있게 병행하고 있다.

(3) 이 집단의 KIMs는 매우 친밀하고 결속된 가족(closely knit family)인 듯하다.

이러한 강한 가족의 결속을 가져오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 관습과 낯선 이곳 미국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를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과 어머니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비우호적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 따라 가족사이의 결속과 상호부조를 증진하므로,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문화적 동화가 높고, 사회적 동화가 낮은 어머니일지라도 갈등은 최소한이 되고 미국 사회로부터 제외되었다는 느낌도 줄어들 수 있다.

(4) 한미 지역사회에 support network systems와 많은 ethnic organiza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인이 대부분인 사회로부터 제외되었다는 느낌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이러한 support network system은, 미국에서의 자녀들의 적응, 자녀교육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나누고 그들 자신의 어려움을 서로 해결하려는 KIMs에 의해 특별히 자주 이용되며, 또한 한국에서 흔히 활용되었던 확대가족으로부터의 보조와 역할을 대치하기도 한다.

제 2 가설 :

LCA와 LSA를 하고있는 KIMs(N=61)는 그들 자녀의 행동문제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51명중 단지 13명(23.5%)만이 그들의 CB를 중간수준으로 인식하고 21명(41.2%)은 그들의 CB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자는 문헌조사를 통해, HCA와 LSA를 하고있는 KIMs는 그들의 모순된 동화 수준 때문에 갈등을 갖게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이 집단 구성원이 다른 두 집단 어머니들(LCA와 LSA에 속하는 KIMs와 HCA와 HSA에 속하는 KIMs)보다 그들의 CB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낮은 문화적 동화와 낮은 사회적 동화 수준(LCA+LSA)을 가진 어머니들은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구조에 동화하는데 있어서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도와주는데 무능력하다. 그러나 이들은 내면적인 가족의 기능과 내면적인 인종적 보조 조직망(ethnic support system) 사이에 문화적, 사회적 모순을 덜

가정에서 자기 생활에서 자녀에게 불편성있다, 또는 민성권 완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집단의 자녀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품고있는 특별한 기대를 이해하고,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미국 문화의 전달과 미국 사회를 소개하는데 오히려 보조적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이 자녀들의 역할은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자녀들은 더욱 더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가 스스로 동화된 아이들보다 더 독립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이들의 CB가 HCA나 LSA를 하고있는 이민 어머니들 보다 낮게 인식한다고 예측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문화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미국의 문화적,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는 높은 문화적, 사회적 동화 수준을 가진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CA와 SA가 낮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적당한 감독과 지도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하였다.

그러므로 낮은 문화적, 사회적 동화 수준의 어머니들은 그들의 CB가 높은 문화적 사회적 동화 수준의 어머니들보다 더 높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낮은 문화적, 사회적 동화 수준의 어머니 집단의 CB에 대한 인식은 중간정도이리라 믿었던 것이다.

제 3 가설 :

HCA와 HSA에 속하는 이민 어머니들(N=30)은 그들 자녀들의 행동문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리라고 예측하였으나 단지 13명(43.3%)만이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집단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이 연구의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문화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도 더 많이 관계되어 있다. 즉 그들은 새로운 언어와 생활방식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응할 뿐아니라 미국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상호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 새로운 세계에서 활동하기위해 자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능력있는 어머니들이다. 그들의 높은 문화적, 사회적 동화 정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그들이 미국에서 위험한 힘든 체험을 뒤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이민은 자녀가 소외감을 덜 느끼고, 미국인 아이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의 안녕에 많이 관여하고 무척 염려하기 쉬운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집단의 KIMs는 자녀들 행동의 문제를 연구자가 예측한 정

도로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제 4 가설 :

HSA와 LCA에 속하는 이민 어머니들은 전체 125개 표본중에서 단지 3개 사례만이 나타났다. 많은 저자들(Gordon, 1964; Greely, 1974; Hurh 1977; Hurh *et al*, 1978, 1980; Yu, 1977; Devore *et al*, 1981)이 문화적 동화는 이주자를 강력하게 포함하는 과정이며 그 정도는 그/그녀 자신의 행동 정도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회적 동화는 원래 존재하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화적 동화는 사회적 동화에 의해 선행된다. Hurh *et al*, (1978)에 의하면 그의 Chicago연구에 있어서 대다수의 한국 이민자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문화적으로 동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동화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III. 제안 및 결론

이 연구는 그간 미국에 이주하고 있는 한국 이민 어머니들, 그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등에 대한 지식을 깊게하고 이민을 위한 앞으로의 사회사업실습, 사회사업교육 그리고 사회사업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이민 어머니들의 문화적, 사회적 동화의 수준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들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개척적인 노력이었다.

연구자는 한국 이민 어머니들의 문화적, 사회적 동화 수준과 그들 자녀들의 행동문제 수준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자녀들의 행동문제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이 어머니의 문화적, 사회적 동화의 정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세가지의 가설들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사실상 이 연구에서 한국 이민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어머니들(67.2%)이 그들의 동화수준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행동문제가 낮거나 중간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지역의 어머니들이 그들 자녀의 행동은 위험하지 않고 어려운 상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로부터의 자료는 한국 이민 가정의 문화적, 사회적 역동성에 대해 사

회사업가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다. 어머니는 한국 가정에서 중요한 인물이므로 이 연구에서 얻어진 어머니들의 응답에서 한국 이민 가정과 이민 가족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적응 그리고 사회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개념(working conceptions)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화적 동화를 책정하는 척도에서 어머니들의 응답은 한국 가족들이 이중 문화적 동화(bicultural assimilation)에 맹렬히 돌진하고 있음을 보였다. 대다수의 어머니(98.4%)들이 그들 자녀들이 한국말, 문화, 풍속등을 배우기를 원하는 동시에 미국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화하기를 바란다.

(2) 문화적, 사회적 동화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미국인 전문 사회사업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적 동화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한국인이나 미국인 전문 사회사업기관중 어느 것이나 이용할 것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에서 한미 지역사회에 한국인 전문사회사업가의 교육과 육성의 중요성은 특히 새로 이주한 가정을 위해서 매우 요구된다.

(3) 이 연구의 자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이민 가족들이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 연구 대상에는 문화적 동화가 사회적 동화보다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인과의 사회적 융합보다는 문화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

개방형 질문에 답변한바에 의하면 이민 어머니들의 최고 관심사는 언어문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세대차이문제 등이었다. 또한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동화됨에 따라 미국인 전문가들(의사나 상담가)을 찾는 경향은 이민국인 미국사회에서 비교적 큰 갈등없이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동화가 일어날 때 미국 사람들과의 접촉이 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강한 민족적 조직(ethnocentric network)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 집단은 대다수가 한국 기독교 교회 교인이거나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기독교가 한국 이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한국 이민들을 위한 역동적 지지 체제(dynamic support system)가 되고, 또한 한국 이민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접근이 개인

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미국 기독교 교회를 통하여 대부분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사회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사회에서의 한국 이민 가족들이 사회적 접근 보다는 문화적 동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요구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이민을 위한 사회사업계획은 현존하는 한국 조직망의 연결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사업 업무는 미시적수준(micro level.)을 넘어서 보다 거시적 수준(macro level)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Pincus and Minahn, 1973 ; Middleman and Goldberg, 1974).

Mary Richmond는 1917년에 민족적, 인종적 특성을 등한시하는 케이스워커에게 경고와 주의를 표명한 바 있다.

(4) 한미지역사회에서의 조사결과는 용광로(melting pot.) 철학 보다는 이중문화적이거나 모자이크같은 철학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한국적인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대계 제삼세대에서 Samua가 발견한 주체성의 불확실한 것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행동주의자들(activists), 사회사업 이론가들(social work theorists)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중문화적 민족적 적응을 가능하고 추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들의 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다원론주의 - The New Pluralism-"(Friedman, 1971), "전략적 적응 - A Strategy of Accomodation - "(Kitano, 1969), "접합적 적응 -Adhesive adaptation." (Hurh and Kim, 1980) 그리고 "이중적 균형 - Dual Perspective -"(Norton, 1978)이다.

이와같이 한미지역사회에서의 강한 이중문화적 민족적 적응(bicultural et-ethnic adaptation)의 향상은 가족지향적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사회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이 연구에서 자녀들의 행동문제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해 고찰하겠다. 이 연구 총대상자 중 대다수인 94.4%가 완전한 가족(intact family)에 속하며 62.4%가 직장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아울러 한국적인 관습으로 가족결속이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가족간의 강한 결속과 상호간의 지지는 어머니와 자녀들간의 갈등을 최소한도로 이끌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사회사업가들은 가족역동과 가족결속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6) 한국 이민 어머니들의 문화적 적응이 사회적 적응에 비해 높다는 것은 시간적 요소(이민기간)도 있으나 이들에게 사회적 동화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닌 듯하다. 사회사업가는 어머니 개개인의 필요와 능력을 평가하고 그들 개개인의 방법으로 자신이 적응토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이 연구 결과에서 문화적 동화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회적 동화는 낮은 수준의 이민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 행동문제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집단 어머니들 41명중 HCB가 17(41.5%)명 MCB가 14명(34.1%)명 그리고 LCB가 10(24.4%)명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 제안으로서 한국 이민어머니들이 학교 사친화(PIA) 또는 다른 학교행사에 그리고 자녀들이 관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학교 또는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 자녀에 대한 보호 지지가 되는 것 뿐만아니라 이민 어머니들 자신의 문화적·사회적 동화를 위해 미국사회에 진출하는 길도 되는 것이다. 사회사업가는 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이들에게 접근하고 개개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7) 사회사업 교육자들은 사회사업 교과목에 “이민과 사회사업”을 설정 또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인 사회사업가들이 각 나라 이민들에 대한 지식을 깊이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틀에 박힌 인식을 수정함도 필요하다. 현존하고 있는 한국이민들의 network system을 통해 한국인 사회사업가(indigenous Korean social worker)를 양성 이들을 위한 지속성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발견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두가설(HCA와 LSA집단, HCA와 HSA집단 어머니)에 대한 결과가 본 연구자가 예측한 대로인 유형을 나타냈으므로 보다 결정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속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하고 자녀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척도도 개발함이 바람직하다. 이민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이민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 고로 앞으로의 연구 대상을 5년이상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

는 것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설문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앞으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표시하였다.

(9) 미국과 한국에서 Human Service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훈련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동하여 'team work'을 시도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 이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매우 유익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미국에 있는 한국이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을 위한 혁신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체화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민 가정은 미국내에 구성되고 있는 강한 민족적 지지 체계가 이민 가정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이민가족들이 한국정신의 보존을 하고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 어머니들의 그들 자녀 행동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은 이와같이 항상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 조직망의 지지 체계와 민족간의 밀접한 결합에서 오는 것이다.

이들 한국이민들의 한국민족성(koreanness)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이중문화의 적응에 대한 갈망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이민 사회를 다루는 어떤 사회사업가에 의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이민들을 취급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사업가가 예방적이고도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계획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민 어머니들의 이중문화적 적응과 밀접한 가족 체계를 지지하고 현존하는 조직망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체계를 촉진 시킬 수 있다.

參 考 文 獻

Devore, Wynetta and Schlesinger, Elfriede, *Ethnic-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The C.V. Mosby Co., 1981.

Friedman, M(Editor), *Overcoming Middle Class Ra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1.

Golan, Naomi and Gruschka, Ruth., "Intergrating the New Immigrant: A Model Social Work Practice in Transitional States," *Social Case Work*, 1971, pp. 83-86.

- Gordon, Milton M. ,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64.
- Greeley, Andrew M. , *Why Cant They Be Like Us ?*, New York : Institute of Human Relations Press, 1969.
- _____ , *Ethnic Cit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1974.
- Hurh, Won Moo, Kim Hei Chu and Kim Kwang Chung, *Assimilation Patterns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 A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Chicago Area*, Washington, D.C. : Univ. Press of America, 1978.
- Hurh, Won Moo and Kim, Kwang Chung,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ictira;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Macomb, Ill. : Dep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Western Illinois Univ., December, 1980.
- Kim, Bok-Lim, "An Appraisal of Korean Immigrant Service Needs," *Social Case Work*, March, 1976, pp. 140-147.
- Kim, Hyung-Chan, "Koreans", *Harvard Encyclopedia of American Ethnic Groups*, Belknap Harvard , 1980.
- Kitano, Harry, *Japanese American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69.
- Landau, Judith , "Therapy with Families in Cultural Transition," in McGoldrick, ed.,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82.
- Langner, Thomas S.; Gesten, Joanne C.; McCarthy, Elizabeth D., "A Screening Inventory for Assessing Psychiatric Impairment in Children 6 to 18."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6, Vol. 44, No. 2, pp. 286-296.
- Muni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1974.
- Norton, Dolores G., "Dual Perspectives: Inclusion of Ethnic Minority Concept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Journal of the Social Work Education*, 1978.
- Parsons, Talcott and Bales, Robert F.,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 Free Press, 1955.
- U.S. Bureau of the Census, *1980 Cens. of Population : Population by Ra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0.
- Vigilante, F., "Two Communities : Two Concepts, " New York : Wurzweller School of Social Work, Yeshiva Univ. (Unpublished paper), 1975.

Yu, Chae-Kun, " Personality adjustment of Korean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n Kim, Hyung-Chan, ed ., *The Korean Diapora*, Santa Barbars : ABC-Clio Press, 1977, pp. 177-190.

Doctoral Dissertation and Master's Thesis

- Chang, Lydia, " Acculturation and Emotional Adjustment of Chinese Women Immigrants," D.S.W. Columbia Univ., 1980.
- Kim, Chong Ok, "The Female Adolescent Recidivist," M. S. W. Smith College, 1972.
- Park, Jong Sam, "A Three Generational Study: Traditional Korean Value Syst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D.S.W. Univ. of Southern Calif., 1975.
- Sanua, V.D., " Differences in Personality adjustment among different generations of American Jews and Non-Jews, " Ph.D., Michigan State Univ., 1956.